

제약기업 불공정 조사 9월 마무리

공정위, 병원 후원 중단선언 바람직 ...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담합도 조사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10일 “제약과 보건의료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9월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병배 부위원장은 “제약기업들이 병원 후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인식하고 고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면서 조사 마무리 시기를 밝혔다.

또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주도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주도 석유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신고가 들어와 광주사무소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조사의 구체적 일정은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합이 동의명령제 대상에서 빠진 채 입법예고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 운영 결과를 보고 담합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의명령제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영향은 없다”면서 “특히, 동의명령을 실시하기 이전에 검찰청장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0>